

住居 雜記

— 生活의 피로는 住居의 安息에서 —

李 鶴 榮

— 생활의 피로는 주거의 安息에서 —

문명의 利器인 메카니즘속에서 요사이 직장인 들은 都市化에 따라서 自然을 잃고, 空間에 위축당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하루의 피로를 풀기도 전에 축적만 되어 가고 있는것 같다.

그것은 마치 旅毒에 쌓여가면서 내일의 里程表를 짚어 가는 집떠난 나그네 같이 초조와 피로가 겹쳐지는것에 비유하면 어떨까.

사람이 기계에 종속하는 사회 — 그것은 인간을 각종 기계의 부속물로 전락 시켰고 생활의 정서적인 여유를 빼앗아가 버렸다. 그러한 정서의 결핍은 감정을 단순화시켜, 현대인의 주거생활을 더욱 단조롭고 피로가 겹쳐도록 자극을 주어진것 같다.

너무나 時間生活에 쫓겨다니는 人間機械(?)와 같은 직장인은 安息을 벗어난 不幸한 삶의 소유자 들이다.

그러한 불행을 씻어주고, 삶의 보람과 내일의 꿈을 키워주는 것은 하나의 가정일 것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住居施設이리라

住居 — 그것은 생활의 안식처이고 삶을 위한 基本시설이다.

프랑스 소설가 『생·뫼리 빼리』는 人間의 발견을 집에서 시작하였다. 그는 사람이 사는곳을 모두 집으로 간주하였다.

家庭도 집이고 학교, 직장, 비행기, 조국, 세계, 지구별, 우주도 집으로 간주하여 인간의 基本을 집에서 발견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때 그러한 범주는 가능하겠지만, 建築的인 측면에서 보는 차원은 좀더 물리적인 것이 많다.

건축을 한답시고, 아직까지 자기집을 한번 지어서 살아보지도 못한 처지에서 무슨 제안과 방향을 제시할수 있으랴마는…… 오늘날의 住居價值觀이 무언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것 같아서 필자의 둔탁한 신경을 자주 자극 하곤 한것 같다.

집은 사람의 個性, 생활정도, 가족등의 취향에 맞게 지어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 基本哲學이다. 그것은 外觀을 번지르하게 치장을 하여 값비싼 집을 지어서 산다는 것도 아니요, 적은 식구에 넓은 집을 소유하는 파시형 부자집도 아니요. 부동산 붐을 탄 돈벌이용 입주 집은 더욱 불행한 집이다.

불합리한 平面과 空間속에서 무언가 재산의 유지 보호 자로써 불안한 관리자 이었지 생활의 안식처라고 볼수없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 入住者를 만나서 들어올지 모르는 남의집을 지켜주는 나그네인 것이다. 얼마전 기승을 부리던 『프리미엄』 아파트를 빌리지 않아도 될것이다.

살고픈 집 — 그것은 우선 자기의 능력에 맞고, 食口들이 무리없이 사용할수 있고, 정서가 갖든 휴식처인 住居이면 족할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일이 담긴 傳統空間이면 더 부러울 것이 있겠느냐?

이제 우리도 높은 眼目으로 분수에 맞게 住居環境을 개선하고 이상적인 住居傳統을 確立할때가 온것 같다.

지난 5月7일에 직장의 낯사회인 성조회(成約會)에 참석하여 다녀오던 길에 강원도 각지방 뿐만아니라, 도처에 새마을 사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것을 볼수 있었다.

그 일환으로 생활바탕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는듯한 농촌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것을 눈여겨 보았다.

한 세대이상 때가문고, 선조의 일이 담과 담, 골목과 골목 사이에 얽혀있는 취락마을을 단시일만에 소도시나 계획하다 시피 획일적인 平面구성과 상하수 시설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것을 볼때 무언가 그것은 이 시대가 안고있는 大命題를 풀기위한 하나의 住居환경의 대역사적인 개선사업임에는 틀림없는 일이다.

옛마을, 그것은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전통마을이다. 며

마을은 좀더 마을다움이 있어야 하고 농가는 농부가 살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취락마을은 마을생활의 환경에 맞게 사회의 요구에 부응되며, 영농의 合理化가 이루어지는 方向에서 계획되며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은 바로 우리의 농촌을 발전시켜서 未來의 生活像에 맞는 마을定主型을 찾아야하는 重要한 모멘트가 되는 機會이기 때문이다.

外國에서 들어온 경양식은 우리 고유 음식인 한정식보다 친숙하지 못하니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 固有의 것은 버리고 남의것만 받아들이기 보담, 우리의 것으로 개량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위스키나 브랜디의 맛보다 우리의 藥酒나 法酒에서 더욱더 우리의 참 맛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사람이 관광을 오면 양주는 개량하고, 약주는 더욱 발전시켜 고유의 맛 보 보으면 좋을것 같다. 옛맛

집도 우리 고유의 집을 개량하여 인간이 안식할 수 있는 田園마을을 꾸며, 창조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공해없는 자연속에 살고있는 원색의 산장을 알프스에서 찾을것이 아니라 태백산맥의 전원이 더욱 소중한 것이다.

각종건물의 밀집과 人間의 都市集中은 都市空間을 너무나 크게 오염시켰다.

지하수, 공기, 소음, 광선, 환경공해 속에서 일몰의 러시아워에는 일말의 허탈과 交通지옥속에서 더욱 피로를 축적시켜왔다. 이것은 삶의 住居環境이 더욱 절실하게 우리의 피로를 씻어주는 쾌적한 안식공간이 되도록 하여야된다는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

이상적인 주거시설이란 너무 사치스럽지 않고, 능력에 맞게 된 삶의 주거에서 피로를 풀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이상적인 집이다.

거기에 순박한 人間을 발전하고 불신하지 않는 이웃을 만들면 더 보탬것이 없는 마을이나 도시가 아니겠느냐.

個人的 독립된 공간을 찾기 위하여 우리도 오래전 부터 大家族制度에서 차츰 分家되어 핵가족이 늘어나고 있

는 실정을 감안하면 무언가 우리의 것을 찾아서 아늑하게 살고싶은 하나의 住宅이 머리에 담겨진다.

테라스에 드리워진 등나무가 5월의 보라꽃 향연을 베풀면, 어느덧 넝쿨 수세미가 계절을 알리고, 채광 창문에는 완자창의 윤곽이 그려지면서, 앞뜰 마당에는 잔디가 파랗게 깔려 있고, 조그만 연못에는 물고기가 살아 있으면 얼마나 平和스럽고 動과 靜이 어울리겠는가?

한치의 마당도 없는 무주택자의 입장이면 屋外 연결공간에 몇개의 花盆이라도 있어서 약간의 정서적인 綠色을 맛볼 수 있으면 그나마도 도움이 되는 집이리라.

그것도 어려우면 화장실 한구석에 시원한 造花라도 한 폭 드리워 보라.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깃든 집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나 우리의 安息度를 높여줄까?

기능주의 건축가 『르·코르뷔제』는 “住宅은 삶을 위한 기구”라고 하였다.

집을 연구하고, 설계한 巨匠들은 너무나 많은 精力을 소비하면서 참다운 주거시설을 규명하여왔다.

유명한 집들은 꾸밈과 가식이 없는 집들인것 같다. 있을곳에 반드시 있고, 필요없는 곳에는 그 무엇도 없다.

요사이의 집은 인구가 증가하고, 家口가 늘어가는때따라서 숫적으로는 늘어왔으나 질적인 개선은 비례로 向上되지 않은것 같다.

너무 허위와 필요 없는 장식이 많은 不良食品인 상품 같이 여겨진다.

機能을 무시하고 人間을 무시한 집들은 空間과 形態만 있을뿐이다. 그것은 이미 생명을 잃었다.

巨匠들의 집들은 날이 갈수록 삶이 生動하고, 현대인의 집들은 住居의 生命을 잃어가고 商品化만 되어가는 理由는 과연 무엇일까?